

국토교통부, “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힘써줄 것”

- 24일 “제6회 콘크리트의 날”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·기술인 격려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“제6회 콘크리트의 날”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(7명)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하였다.
- (사)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김지상 학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·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·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 - * 한국콘크리트학회 창립기념일(1989.6.24.)을 콘크리트의 날로 지정하여 '19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
- 기념식에서는 “Smart, Safety, Green(SSG) Concrete Technology의 확보를 통한 스마트, 그린, 안전사회의 구현”이라는 비전 2050이 선포되었다.
-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“콘크리트는 토목공사의 감초로 불리는 핵심 건설자재인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설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국토교통부에서도 “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, 스마트 건설 실증지원사업 등 콘크리트 기술과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하였다.
 - 한국콘크리트학회에는 “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주기”를 당부하였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 6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